



수비 이어... 공격도 '호령'

KIA 김호령의 진화

안정감 있는 수비로 데뷔 첫 해부터 외야 차지 올 시즌 타율 0.351...장타율·출루율도 좋아져

KIA 외야수 김호령이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져서 성적이 달라졌는지 정확한 선후관계는 따지기는 어렵지만 김호령의 표정과 성적이 달라졌다. 김호령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잠정만 큼이나 약점이 뚜렷한 선수였다. 10라운드 마지막 순번에 지명을 받고 프로에 입단했지만 타고난 수비와 빠른 발로 입단 첫해 1군에서 이름을 알렸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김호령은 이미 낙구 지점에 가서 공을 기다리곤 했다. 호수비이지만 호수비로 느껴지지 않는 안정감 있는 수비 능력을 보여주면서, 외야를 호령하던 '재

간둥이' 이순철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김호령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수비수' 김호령과는 전혀 다른 '타자' 김호령이 있었다. 대졸 루키의 첫 시즌 타율은 0.218(257타수 56안타)에 그쳤다. 골라낸 볼넷은 겨우 15개. 반면 삼진으로 물러난 타석은 83타석이나 됐다. 수비 하나 만을 보고 기회를 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했던 성적이다. 여기에 기존의 틀을 벗지 못하면서 타격의 발전 속도가 더뎠고, 코칭스태프는 병어리 냉기습을 알아야 했다. 올 시즌에는 낯선 타자 김호령이 타석에 서고 있다. "인생 최고의 타율이다"고 웃

을 정도로 타격 페이스가 심상치 않다. 23일 현재 그는 21경기에 나와 74타수 26안타로 0.351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홈런 하나 더해 8타점을 올리기도 했다. 여전히 볼넷(4) 삼진(16) 비율이 아쉽기는 하지만 장타율(0.419)과 출루율(0.407)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지난해 OPS가 0.558(장타율 0.284, 출루율 0.558)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긴장된 표정으로 덕아웃을 오가던 김호령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타자로서도 자신감이 생기면서 야구가 재미있다. 김호령의 타격에 힘이 붙게 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힘을 빼서이다. 김호령은 "힘 빼고 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다. 그동안 경직된 모습으로 야구를 했는데 편하게 치자고 생각을 하면서 힘을 빼니까 임팩트가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호령은 동료들이 인정하는 '연습벌

레'다. 동국대시절에는 송구 능력을 키우려고 강훈련을 하다가 투수들이 흔히 하는 팔꿈치인대접합(토미존)수술을 받기도 했다. 김호령은 "송구가 좋지 않아서 틀이 날 때마다 던지는 연습을 했다. 그러다가 팔꿈치 인대가 손상됐다. 수술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뺏조각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뺏조각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팔꿈치 수술까지 같이 했다"고 말했다. 연습만으로는 부족했던 실력, 틀을 버리고 노하우를 흡수하면서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김호령은 "잘못된 폼으로 쳤던 것 같다. 상체 위주로 스윙을 했다면 하체 중심으로 치는 것도 알게 됐다. 중요한 상황에서는 긴장도 되지만 수비는 자신 있다. 아직 배워야 할 게 더 많다. 더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김민혁·이오름 K리그 클래식 베스트 11



광주 FC의 미드필더 김민혁과 수비수 이오름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프로축구연맹이 24일 K리그 클래식 11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광주는 앞선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11라운드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터트린 김민혁과 철벽 수비로 무실점 경기를 이끈 이오름의 활약 속에 1-0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천만원 상당 야구용품 증정 광주광역시야구협회(회장 나훈)가 24일 무등경기장에서 광주지역 초·중·고·대 야구 육성 학교에 2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증정했다. 협회는 2013년부터 매년 지역 야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증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야구협회 제공>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지구 라이벌이자 리그 최강을 자랑하는 시카고 컵스의 중심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역전승의 다리를 놓았다. 오승환은 24일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서 1-3으로 뒤진 7회초에 등판해 1이닝을 삼진 1개를 곁들여 파펙트로 처리했다. 오승환은 첫 타자인 3번 벤 조브리스트에게 94마일(약 151km)짜리 직구만 3개를 연이어 던져 3루수 뜬공으로 돌려세웠다. 4번 앤서니 리조에게는 95마일(약 153km)로 속도를 높인 뒤 2볼-2스트라이크에서 체인지업으로 3루수 땅볼로 요리했다. 5번

호르헤 솔레어는 2볼-2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93마일(약 150km)짜리 직구로 루킹 삼진을 끌어냈다. 3타자를 상대로 한 투구수는 13개(스트라이크 9개, 볼 4개)에 불과했다. 지난 2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 이어 이날 만에 등판해 9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간 오승환은 시즌 평균 자책점을 1.19에서 1.14까지 떨어뜨렸다. 한편 7회말 맷 애덤스의 투런포로 3-3 동점을 만든 세인트루이스는 9회말 랜달 그리치의 끝내기 홈런으로 4-3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오승환 1이닝 퍼펙트 팀 4-3 역전승 견인



추신수 부상자 명단에 복귀까지 3~4주 걸릴 듯

퓨처스리그 '먼데이나이트 베이스볼' 열리던 밤

월요일 야구 즐긴 관중들 밤 야구 적응 못한 선수들

KIA-경찰청 실책 남발하며 12-19 졸전

지난 23일 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불이 밝혀졌다. '야구 없는 월요일'이었지만 이날 퓨처스리그의 '먼데이나이트 베이스볼' 경기가 치러지면서 조명탑에 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날 KIA의 상대는 경찰청야구단이였다. 선발 라인업에 익숙한 이름들이 눈에 띄었다. 잠시 KIA 유니폼을 벗고 경찰청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라인업에 포진했다. 박준태가 2번 타자 겸 중견수로 입대 후 처음으로 친정을 찾았고, 안치홍도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지명타자로 타석에 섰다. 올 시즌 전역을 하는 이경록도 5번 타자 겸 좌익수로 이름을 올렸다. 사이드암 박정수를 제외하고는 우완 이종석까지 이날 '호령이 군단'의 일원이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서 출출동했다. 초반에는 팽팽한 흐름이었다. 그러나 0-1로 뒤진 4회초, '먼데이나이트 베이스볼'로 인한 9연전 일정 속에 18일(2이닝), 21일(2이닝) 경기를 소화했던 KIA 선발 유창식의 페이스가 푹 떨어졌다. 3개의 사사구와 2루타로 0-4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4회말 윤정우가 경찰 선발 이인복을 상대로 중앙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쏘아올렸지만 악몽의 5회초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창식의 볼넷이 속출했고 3루수 황대인의 실책성 수비가 이어졌다. 결국 유창식에 이어 박동민-김현준-전우엽 세 명의 투수가 투입됐지만 KIA는 5회

에만 14실점을 했다. 타자 이순을 넘어 세 타석에 들어선 선수까지 등장했다. 설상가상 발목 인대 부상으로 복귀해 속도를 내던 박동민은 공 하나만을 던지고 또다시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KIA는 2-18로 뒤진 7회, 13.1이닝 무실점 행진 속에 9세이브를 기록한 이종석을 상대로 5점을 뿔어냈지만 경기는 12-19패로 끝났다. 퓨처스리그는 오후 1시에 시작되는 만큼 야간경기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해가지고 하늘이 어둡아득해지자 플라이타구를 쫓는 야수들의 움직임이 무뎠다. 내·외야를 오가고 있는 KIA 루키 최원준이 평범한 우익수 플라이타구를 놓쳤고, 경찰 우익수로 나온 이성근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낮은 야간 경기에 방송 중계까지, 퓨처스리그 선수들에게는 긴장감 배배의 아쉬운 경기가 되고 말았다. 경기 내용은 부실했지만 팬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이날 경기장에는 350여명의 야구팬이 찾아 '먼데이나이트 베이스볼'을 즐겼다. 선수들의 응원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고, 응원현수막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비로 24일 경기를 치르지 못한 두 팀은 25일 오후 1시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이번 3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소화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 텍사스 구단은 24일 추신수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 지난달 11일 오른쪽 종아리 염좌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던 추신수는 21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 맞춰 40일 만에 복귀했다.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두 타석 연속 볼넷을 끌었고, 3회 2루 주자로 있다가 프린스 필더의 2루타 때 홈을 밟았다. 2루를 거쳐 3루를 도는 과정에서 추신수는 왼쪽 햄스트링에 통증을 느

졌고, 곧바로 경기에서 빠졌다. 처음에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단은 3일 만에 추신수를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 존 대니얼스 텍사스 단장은 "작년 멜리노 드실즈가 햄스트링을 다쳤을 때와 매우 흡사하다. 멜리노는 갑자기 햄스트링 근육이 비틀린 느낌을 받고 빠졌는데, 복귀하는 데 3주가 걸렸다. 추신수도 3~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2012년에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6경기에 결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